



## 산업 Issue

2026년 7월 3일 | 글로벌 리서치

# 미국 태양광

## 미국의 중국산 인버터 제한 조치 영향

### 유럽과 일본에 이어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한 조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외국산 태양광 인버터의 신규 수입 금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전력망에 대한 안보이나 AD/CVD, Section 232 등 최근 미국의 태양광 정책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서 무역규제는 그동안 셀과 모듈에 집중되었으나 인버터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올해 안에 구체적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U에서도 5월에 고위험 공급 4개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인버터와 PCS(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 공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원 지급을 금지했으며 일본에서도 '일본 사이버보안 신뢰성 평가(JC-STAR)'에 중국 기업을 전원 기각시키며 간접적인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인버터는 중국 화웨이와 선그로우 비중 55%

2025년 연간 글로벌 인버터 출하량은 577GWac(YoY -2%)이며 화웨이와 선그로우가 합산 비중 55%로 10년 연속 글로벌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 9개로 인버터 내 중국 비중은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다만 미국 주택용 인버터는 솔라엠티지(SEDG), 테슬라(TSLA), 엔페이즈에너지(ENPH)가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FCC의 중국 밸류체인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상업용과 유틸리티까지 아우르는 전수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 캐패를 모두 미국산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프로젝트의 완공 시기가 지연되거나 설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비주택용 인버터 익스포져 높은 SEDG에 유리

장기적으로 FCC 조치에 따른 기업별 영향은 엔드마켓 비중과 주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전망이다. 주택용 고객에 집중했던 엔페이즈에너지와 달리 솔라엠티지는 C&I와 유틸리티 비중을 확대했다. 솔라엠티지는 유틸리티 및 상업용 대형 스트링 인버터 라인업(TerraMax)을 구축하고 있으며 옵티마이저(최적화 장치)를 동시에 판매해 탑라인 확대와 추후 재판매에도 유리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밸류체인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폴리실리콘 Section 232가 6월 내 발표 가능성이 높았지만 8월(예상)경으로 연기된 이유도 선부른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